

일본어의 「Nがない」를 통해 본 부정표현의 특징*

김 영 민**

erumu@hanmail.net

〈目次〉

- | | |
|-------------------|----------------------|
| 1. 들어가기 | 4. 「Nがない」와 부사와의 상호작용 |
| 2. 선행연구 | 5. 「Nがない」가 나타내는 부정표현 |
| 3. 「Nがない」의 유형별 분류 | 6. 나가기 |

Key word : 부정(negation), 부정표현(negative expression), 부사(adverb), 명사(noun), 상호작용(cooperation)

1. 들어가기

현대 일본어의 존재동사 「ある」는 「ない」를 부가한 「あらない」라는 부정형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용사 「ない」를 취하여 부정형식을 대신한다. 부정표현 중에는 다음 예문과 같이 [명사+조사+ない]의 형태를 취하는 「Nがない」라는 표현이 존재한다.

- (1)この辺には病院がないね/もう時間がない/パン屋にパンがない
- (2)彼の帰って来そうな様子がない。
- (3)この私が難しい問題を解けるはずがない。
- (4)道徳的にだらしがない/済んだことはしようがない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5A07917700)

**가천대학교 동양어문학과 강사, 일본어학 전공

이들 표현은 구조적으로는 「Nがない」라는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다양성과 차이점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Nがない」는 ‘N이 없다’라는 ‘비존재’의 의미를 비롯하여 ‘부족함, 속성, 실망감’등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다. 또, 「Nがない」에 대응하는 긍정형식의 유무와 부사와의 상호작용 및 연체수식관계 등의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양성과 차이점도 찾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 부정표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술어에 연결된 부정사 「ない」에 집중되어 부정의 작용역, 부정의 초점에 관한 것, 그리고 부정사 「ない」와 조사, 부사, 수량사 등의 구성요소와의 상호작용에 집중되어 왔다. 이에 비해서 동사 「ある」의 부정형인 형용사 「ない」에 대한 고찰은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어렵고, 「Nがない」에 관한 것도 의미에 관한 연구에 머물러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이하, 본고에서는 다양한 면모를 보이는 「Nがない」를 대상으로 하여 ①표현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고, ②부사와의 호응관계를 조사하며, ③부정표현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밝혀내기 위해 고찰해 나가고자 한다.¹⁾

2. 선행연구

2-1 森田(1995)

森田(1995)는 「ある」의 부정형인 형용사 「ない」의 용법 중에는 ‘비존재, 부족, 기대나 예상에 반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²⁾등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첫째, ‘비존재’는 사물의 유무, 존재/비존재, 소유/비소유를 문제로 삼거나 위치를 한정하는 존재의 부정을 나타낸다고 했다³⁾. 둘째, ‘부족’을 나타내는

1) 본 연구는 다음 문헌들의 전체적인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井島正博(2013), 加藤泰彦(1989), 金英敏(2002)(2005), 工藤真由美(1997) (1999)(2000), 高橋太郎(1987), 丁允英(2005), 仁田義雄(2007), 朴秀娟(2010), 益岡隆志(1991)(1993), 守矢信明(2001), 南雅彦(2009), Y.Kato(1985)

2) 森田良幸(1995) 「否定の効果」 『日本語の視点』 創拓社 pp.231-233

3) 森田良幸(1995) 주2)의 전개서 pp.231-233

경우는 「ない」가 ‘완전히 ‘無’를 의미하기 보다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한다’⁴⁾고 한다. 셋째, ‘기대나 예상에 반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는 「ない」가 수량의 많고 적음이나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기 보다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예상했던 것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⁵⁾고 하였다.

2-2 工藤(1999)

工藤(1999)는 「Nがない」를 「～気配がない、～様子がない」와 「連絡がない、効き目がない」의 두 종류로 구분하여 연체수식의 유무에 관해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⁶⁾이라고 하였다. 한편, 「Nがない」와 호응하는 부사에 대해서는 ‘실현불가능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 중에는 가능동사보다는 「Nがない」와 더 잘 호응하는 것과 연체용법에 사용되는 것과 술어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존재하므로 부정과 호응관계를 보이는 부사가 「Nがない」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특성을 보인다’⁷⁾고 하였다.

2-3 大崎(2005)

大崎(2005)는 「Nがない」에는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며, 「とても余裕がない」와 「とても縁がない」의 경우, 전자는 부연 설명 없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부연 설명이 없으면 매우 부자연스럽고 불완전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⁸⁾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한 「Nがない」라는 부정표현의 특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괄목할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체수식에 관련된 두 가지 유형에 대한 고찰과 다양한 부사와

4) 森田良幸(1995) 주2)의 전계서 pp.233-234

5) 森田良幸(1995) 주2)의 전계서 pp.238-239

6) 工藤真由美(1999) 「否定と呼応する副詞をめぐって—実践調査から」 『大阪大学文学部紀要』39 p.90

7) 工藤真由美(1999) 주6)의 전계서 pp.90-91

8) 大崎志保(2005) 「否定と呼応する「とても」、「とても」について」 『筑波応用言語学研究』12 p.109

의 호응관계에 대한 고찰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제기에 머물렀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Nがない」라는 형태의 표현을 부정표현으로 인정하고, 이들이 보여주는 언어현상을 체계적으로 이론화시키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Nがない」에서 사용되는 명사의 특성 및 「Nがない」와 연관된 문맥의 특성을 고찰의 대상에 포함시켜 「ない」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다양성을 「Nがない」의 형태를 한 부정표현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고찰해 나가고자 한다.

3. 「Nがない」의 유형별 분류

「Nがない」에 의해 연출되는 표현은 크게 두 가지 특성에 의해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다. 한 가지는 ‘명사(N)가 독립성을 갖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Nがない」에 대립하는 긍정형식의 존재여부의 유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명사(N)의 독립성’이라는 특성에 의해 아래 예문의 「お金、パン、元気」 등의 연체수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인 경우와 「こと、もの、はず」와 같이 독립성을 띠지 못해서 항상 연체수식이 필요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또 「Nがない」에는 ‘긍정형식과의 관계’에서 ‘긍정형식과 대립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Nがない」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상의 특성과 이에 따른 표현 의도는 물론 의미해석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3-1 긍정형식과의 대립이 존재하는 경우

(1) 연체수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 (5) a. 有名なパン屋はいつもパンがないのね。
 b. パンがない。

- (6) a.大学の学費を自分で払っているから、いつもお金がない。
b.お金がない。
- (7) a.勉強ばかりで、息抜きもしないから、そんなに元気がないのよ。
b.元気がない。

위의 예문의 경우,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5)a-(7)a.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5)b-(7)b.는 상태를 나타내기보다는 새로운 발견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연체수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표현의 독립성이 유지되므로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연체수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 (8) a.彼女とデートしたが、無口すぎてつまらなかった。(男性)にもてるわけがない。
b.?もてるわけがない。
- (9) a.授業でお前がいつも答えられないと、だれも勉強してきたと思うはずがないのよ。
b.?だれも勉強してきたと思うはずがない。
- (11) a.まったく責任を感じている様子がない。
b.?まったく様子がない。
- (12) a.とてもゴージャスやエレガントな装いには縁がない。
b.?とても縁がない。

「～ことがない, ～ものがない, ～はずがない, ～ところがない, ～わけがない」 등의 형식명사를 수반하거나, 「～様子がない, ～気がない, ～場がない, ～事態がない, ～資格がない, ～差がない」 등의 명사를 수반한 표현을 들 수 있다. 이들은 「こと, もの,はず, -ところ, わけ」 등의 형식명사와 「様子, 기, -場, -事態, -資格」 등의 명사를 구체화시켜주는 연체수식이 생략될 경우, 부자연스럽고 불완전한 표현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3-1의 「Nがない」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긍정형식과의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현대일본어에는 외견으로는 부정표현으로 보이지만 「ない」의 기능을 상실한 표현이 있다. 일반적으로 ‘파생형용사’ 또는 ‘복합형용사’로 분류되는 「だら(し)かない、しょう(か)かない、仕方(か)かない、申し訳(か)かない」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 표현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대응하는 긍정형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의 단어로 작용하는 일어화(一語化)의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味気(あじ)ない、危(あや)まない、大人(おとな)げない、心(こゝろ)ない、造作(ぞうさく)ない、そっけ(そっけ)ない、情け(なさけ)ない、何気(なにげ)ない、申し分(もうり)ない、否応(いなうたが)ない」 등은 조사 「が」의 생각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뿐만 아니라 「心(こゝろ)ない、何気(なにげ)ない、否応(いなうたが)ない」 등은 술어용법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명사수식이나 동사수식에 국한되어 사용된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 (13)部長にはいつも心ない言葉を浴びせられた。(名詞修飾)
- (14)逆に、冷たくされたり、心ない一言ですごく落ち込むの。(名詞修飾)
- (15) * その言葉は心なかった。(述語)
- (16)それは否応{が/の/も}ない事実である。(名詞修飾)
- (17)家出した娘を{否応なく/否応なしに}連れ戻した。(連用修飾)
- (18)先日、赤十字募金が{否応なく/否応なしに}付いてきた。(連用修飾)
- (19) * 先日、赤十字募金は否応なかった。(述語)
- (20) * 両親のやり方は、否応なかった。(述語)

또한, 이들 표현은 부사와의 호응관계에서도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즉, 다음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긍정형식과 호응하는 부사와는 호응하지만, 부정과 호응하는 부사와 어울리지 못한다.

- (21) a. パジャマのまま、朝食を食べるの。とてもだらしない気がする。
b. *けっしてだらしない気がする。
- (22) a. ちょっと仕方ない人が言っているんじゃないかねえ。
b. *さっぱり仕方ない人が言っている。
- (23) a. 人間的に少し申し訳ない面もあるからね。
b. *ちっとも申し訳ない面もある。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Nがない」의 형태를 취하는 표현 중에는 宮島(1980)가 지적한 ‘무의미형태소화(無意味形態素化)’의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관용표현으로서의 특성도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Nがない」와 부사와의 상호작용

工藤(1999)는 新潮文庫에 수록된 46권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부정과 호응하는 부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문법적부정형식과 호응하는 부사를 32종으로 정리하고, 각각의 특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시켰다. 본고에서는 工藤의 분류를 근거로 하여 우선, 일반 형용사 술어와는 호응하지 않지만 「Nがない」와는 자연스럽게 호응하거나, 실현불가능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과 호응할 경우 가능동사보다 「Nがない」와 더 잘 호응하는 부사등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사와 호응하는 부정표현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부정’, ‘양의부정’등에 관한 내용이 「Nがない」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いっこうに」의 특성

- (24) 花の時期は終わってしまったのだろうか。しばらく待ってみたが、いっこうに開く気配がない。(畑)
- (25) 暗躍はいっこうに成績が上がる様子がない。(新)
- (26) 意外と乗ってくるかもしれないのだ—いっこうに反応がない。(ハ)
- (27) a.?暗躍はいっこうに成績が上がる様子がない.
b.*暗躍はいっこうに成績が上がれない.

「いっこうに」의 특징적인 의미는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가능표현과 자연스럽게 공기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오히려 가능표현 보다는 위의 예문처럼 「~気配がない、~様子がない、反応がない」 등의 「Nがない」와 자연스럽게 호응한다

는 독특성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いっこうに」는 ‘실현될 가능성을 조금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미상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부정을 나타내므로 「さっぱり、ぜんぜん」 등의 완전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와의 호환도 가능하다.

4.2 「さっぱり、まるで、まるっきり」의 특성

일반적으로 「さっぱり、まるで、まるっきり」는 형용사술어와 공기(共起)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Nがない」와는 매우 자연스럽게 공기(共起)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호응관계를 나타낸다.

1) 「さっぱり」

- (28) a. 当時、俺はさっぱり要領のない話し方をしていた。(W)
 b. 要領がさっぱりない。
 c. *要領がさっぱりよくない。
- (29) a. 慶喜の屋敷があった場所だが、さっぱりその面影がない。(徳)
 b. その面影がさっぱりない。
 c. *その面影がさっぱり薄くない。

「さっぱり」는 일반적으로 주로 동사술어와 호응하고, 그 중에서도 「分らない」와 가장 많이 호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よい、薄い」 등의 일반형용사와는 호응하지 않는다는 것과, 「Nがない」의 「ない」와는 매우 자연스럽게 호응관계를 유지한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준다.

- (30) a. 茶わん蒸し、魚の焼きもの、魚介類の酢のもの、おひたしなど、比較的さっぱりした製品がない。(惣)
 b. *製品がさっぱりしたない。
 c. さっぱりした製品が多い。

한편 예문(30)의 경우, 앞의 (28)-(29)와 형태상으로는 같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さっぱりした」가 명사를 수식하는 긍정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ない」와는 호응하지 않지만, 「多い」와는 자연스럽게 호응하므로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まるで/まるっきり」

(31) 早期教育?本人はまるでやる気がないのに....ね。(Y)

(32) きみは嫉妬してる、性的な嫉妬にさいなまれてるんだ。ばかだな、そんな 必要がまるでないのに。(二)

(33) 先生からみてもいい子ですし、お母さんからみてもいい子なんですが、自我の成長がまるっきりない。(志)

(34) このところまるっきり来訪者がないんです。(ラ)

(35) 「結婚などという期待はしないでくれ。その気がないんだ。まるっきりね」(真)

「まるで/まるっきり」또한 위의 예문에서 보여주듯이 「Nがない」의 형태를 한 표현과는 자연스럽게 호응하며 구문상의 자유로움을 통해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지만, 아래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형용사와는 호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6) このところ{*まるで/*まるっきり}来訪者が多くないんです。

4-3 ‘정도의 부정’

1) とても

(37) 幼い頃から、とても元気がなくて、いつも母に心配を掛けた。(生)

(38) ネーターの数学的業績を簡単に紹介するなどということは難しすぎてとても自信がない。(東)

(39) とてもゴージャスやエレガントな装いには縁がない。(朝)

「とても」와 「Nがない」에 의해 생성되는 위의 표현에서도 명사(N)의 특성에 의해 「とても~Nがない」의 서로 다른 양상을 볼 수 있다. (37)-(38)의 경우 「とても元気がない」, 「とても自信がない」는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39)의 경우는 그 양상이 사뭇 다르다. 즉,

(40)??とても縁がない。

와 같이 명사「縁」을 수식하는 표현이 생략될 경우 매우 부자연스럽고 불완전한 표현이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런 특성을 나타낼 경우, 「とても」는 「とうてい」와 호환이 가능하다.

2) とうてい

(41) しかも今なお、大内家をそっくり奪った陶と真正面から全軍をあげて会戦しては、とうてい勝目がないと思われるのである。(不)

(42) 啄本の渡米はとうてい実現するはずがなかった。(チャー)

(43) あるべき場所へもどすなどという余裕はとうていない。(裏)

(44) それではとうてい歴史を語る資格はなかりう。(朝)

(41)의 경우 「とうてい勝ち目がない」라는 표현만으로도 충분히 의미전달이 된다. 그러나 (42)-(44)의 경우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45)*とうていはずがない。

(46)??余裕はとうていない。

(47)??とうてい資格はなかりう。

와 같이 명사(N)를 수식하는 표현이 생략될 경우 바르지 않은 표현이 되거나, 부자연스럽고 불완전한 표현이 되고 만다.

3) 決して

(48) そんなわけがない。決してそんなわけがありません。(小)

(49) 同僚、職場環境のいづれについても、決して不満を述べることがない。

(50) ケアと援助は誰に対しても決して欠けることがなかった。

와 같이 「決して」는 긍정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완전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48)처럼 선행문맥의 부정을 강조하거나, (49)-(50)처럼 선행문맥에 있는 긍정적인 단정, 또는 긍정적인 귀결을 부정할 경우 사용된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표현과 호응할 수 있지만, 긍정의 여지를 남기는 표현과는 호응하지 않는다.

4.4. ‘양의 부정’

‘양의 부정’을 연출하는 부사는 「あまり、ちっとも、ぜんぜん」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부사는 일반적인 부정표현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Nがない」에서도 똑같은 양상으로 표현된다. 다시 말해 「あまり」는 부분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아래의 「ちっとも、ぜんぜん」과는 차이점을 보인다. 그리고 「ちっとも」와 「ぜんぜん」은 「さっぱり、まるで、まるっきり」에 비해 「ちっともおいしくない」「ぜんぜん暑くない」와 같이 형용사술어와 호응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구체적인 예문은 다음과 같다.

1) あまり

- (51) 私は現在、日本研究の仕事とはあまり関係がありません。(開)
 (52) もともと自分で値段を決めたから、あまり意味がないよ。
 (53) 私の商品と時間差があまりなさそうです。

2) ちっとも

- (54) きみの考えは正しい。東京なんかちっともいいことない。(証)
 (55) 自分ひとりになっても、ちっとも孤独感がなかった。(砂)
 (56) 家来だからと言って馬鹿にする理由はちっともない。(少)

3) ぜんぜん

- (57) アルコール分はぜんぜんなかった。(楡)
 (58) 書物に対する尊敬の念が全然なかった。(楡)
 (59) 『フーズ・ハニイ』でなきゃいけない理由がぜんぜんない。(氷)

5. 「Nがない」의 의미해석의 문제

5-1 연체수식과의 관계

명사를 보다 더 선명하게 구체화시켜주는 연체수식의 유무는 의미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 (60) a. 男とは会いたくない。
b. 多くの女性と付合っている男とは会いたくない。

의 경우 예문 (60)a.과 (60)b.는 문의 의미해석이 전혀 다르다. 결국 연체수식에 의해 부정문의 초점이 「男」와 「多くの女性と付合っている男」라는 차이점을 나타내므로 의미해석 또한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은 「Nがない」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 (61) a. サンドイッチがないね。
b. あんなにおいしいサンドウィッチはないよ。
(62) a. 冷蔵庫にビールがない。
b. 冷蔵庫に冷たいビールはない。

(61)a.-(62)a.에서는 단순히 지금 필요로 하거나 찾고 있는 “샌드위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맥주가 없다”는 사실을 표현하므로 ‘있다/없다’의 존재여부에 중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1)b.-(62)b.에서는 “샌드위치” “맥주”의 존재여부를 언급하기 보다는 오히려 “맛”의 차이점이나 “맥주의 온도”가 부정의 초점으로 작용하여 의미해석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2 「Nがない」의 다양한 의미

森田(1995)는 ‘부정한다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그 이외의 상황을 널리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긍정상태를 넓게 취할 수 있게 되어

긍정형으로 말하기 보다는 부정표현을 사용하는 편이 여운이 있는 완곡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다⁹⁾고 한다. 예를 들어

- (63) a.この度はお礼の申しようもございません。
b.約束を破って申し訳(が)ない。

와 같은 경우 「ありがとう」「すまない」와 같이 직선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나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보다 「申しようがない」「申し訳がない」라는 부정표현을 빌어 우회적으로 표현할 경우 훨씬 더 깊게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다. 또, 사물의 유무를 나타내거나, 존재/비존재를 가늠해야할 경우에도 「Nがない」는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하며 다양한 의미를 유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64) a.どんな小さな生き物にも命がある。
b.包装された椎茸は命がない。

위의 예문은 「ある↔ない」의 ‘존재/비존재’라는 ‘二者択一’의 관계를 통해 ‘긍정과 부정이 대립의 관계’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자면 「ある」를 부정하면 「ない」로 표현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ある」또는 「ない」 중의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存否의 문제’를 표현하는 예문이라는 것과 「Nがない」에 사용되는 「ない」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 (65) a.井上には養う子供が3人もある。
b.園長には家族がない。
(66) a.井上には悩みがある。
b.園長には悩みがない。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有る」는 「持つ」, 「ない」는 「持たない」의 의미를 내포하여 ‘소유/비소유’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음의 예문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Nがない」를 볼 수 있다.

9) 森田良行(1995 주2)의 전계서 pp.225-226

- (67) a. 締め切りまで後5時間、もう時間がない。
 b. 聞く耳がない人に聞く耳をもたせるのは大変な事です。(Y)
- (68) a. 駅員どころか、自動券売機もなく、したがって切符もない。(赤)
 b. あれほど頑張ったのに、秀が一つもないね。

결국 「Nがない」에 사용되는 「ない」는 단순히 ‘비존재’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67)의 ‘부족함’, (68)의 기대하거나 예상했던 것에 반한 ‘실망’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나가기

본고에서는 현대 일본어의 「Nがない」의 부정표현으로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는 일부현상에 대해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Nがない」를 통해 볼 수 있는 부정표현으로서의 다양한 면모와 특성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본고의 고찰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알 수 있었다. 「Nがない」는 3가지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과 부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반적인 부정표현과 동일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사(N)의 성격에 의해 독립성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며, 이 같은 특성은 부사와의 호응관계 및 의미해석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 부사와의 호응관계에서는 다른 표현과는 호응하지 않지만, 「Nがない」와는 자연스럽게 호응관계를 보이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을 표현하고자 할 때, 「いっこうに」는 「Nがない」와는 호응하지만 일반적인 가능표현과는 호응하지 않는다는 독특한 양상을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さっぱり、まるで、まるっきり」 등의 부사도 일반형용사와는 어울리지 않지만, 「Nがない」와는 자유롭게 호응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Nがない」가 ‘양의 부정’ ‘정도의 부정’ 등의 부정표현으로서의 일반적인 언어적인 현상을 감당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의미해석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명사(N)와 관련된

연체수식의 유무에 관련한 해석의 문제 및 「ない」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의미에 따라 다양한 의미해석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본고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부사와의 호응관계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제시한 다양한 부사와 「Nがない」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논리적으로 체계화하여 부정표현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을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參考文獻>

- 井島正博(2013) 「副詞句と否定文」 『成蹊大学一般研究報告』 第47卷 pp.1-26
- 大崎志保(2005) 「否定と呼応する「とうてい」、「とても」について」 『筑波応用言語学研究』 12 pp.99-111
- 加藤泰彦(1989) 「否定のスコープ」 『日本小事典』 大衆館書店 pp.208-212
- 金英敏(2002) 「否定と副詞」 『日本語の否定文の研究』 韓国外國語大学校 大学院 pp.115-135
- _____ (2005) 「否定の焦点に関する一考察」 『人文科学研究論文輯』 제13집 가천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pp.141-164
- 工藤真由美(1997) 「否定文とディスコース」 『ことばの科学8』 むぎ書房
- _____ (1999) 「否定と呼応する副詞をめぐって—実践調査から」 『大阪大学文学部紀要』 39 pp.69-107
- _____ (1999) 「現代日本語の文法的否定形式と語彙的否定形式」 『現代日本語研究』 第6号 pp.1-22
- _____ (2000) 『否定の表現』 『時・否定と取り立て』 岩波書店 pp.95-150
- 高橋太郎(1987) 「動詞そのI」 『教育国語』 むぎ書房
- 丁允英(2005) 「文末に否定表現を伴う副詞について」 『早稲田日本語研究』 (13) pp.37-48
- 仁田義雄(2007) 『現代日本語文法3』 くろしお出版 pp.255-259
- 原田登美(1982) 「否定との関係による副詞の四分類」 『国語学』 128号 pp.122-138
- 朴秀娟(2010) 「否定とも肯定とも共起する副詞『とても』について」 『阪大日本語研究』 22 pp.43-63
- 益岡隆志(1991) 『モダリティの文法』 くろしお出版 pp.60-74
- _____ (1993) 『24週日本語文法ツアー』 くろしお出版 pp.32-37
- 宮島達夫(1980) 「意味分野と語種」 『研究報告集』 2卷 pp.1-16
- 森田良行(1995) 「否定の効果」 『日本語の視点』 創拓社 pp.223-241
- 守守信明(2001) 「言語的根拠、否定表現」 『香川大学経済論叢』 第74卷 第2号 pp.21-33
- 南雅彦(2009) 『言語と文化』 くろしお出版 pp.165-166
- Y.Kato(1985) "NEGATION SENTENCES IN JAPANESE" *Sophia Linguistica* Vol.XIX, pp.120-145

<용례출전>

*본고에서 사용한 용례는 주로 少納言(KOTONOHA 『現代日本語書き言葉
均衡コーパス』)에서 인용하였음.

(畑):岩村文雄(2002)『畑の花を訪ねて』, (新):横田淳(2003)『新選組』 (ハ):
ポーラ・ゴズリング(1992)『ハロウィーンの死体』, (W):유름(2002)『Whydun
it』, (德):徳川慶朝(1997)『徳川慶喜家にようこそ』, (惣):中山正夫(2004)『惣菜入
門』, (二):ジャクリーン・バード(2002)『二人のバレンタイン』, (志):加藤諦三(2
002)『志ある子に育てるにはどうしたらいいか』, (ラ):志水辰夫(2004)『ラスト
ドリーム』, (真):ハーレクイン(2002)『真夏の恋の物語』, (Y):Yahoo!知恵袋(200
5) (生):香月美里(2005)『生まれかわった日』, (東):立花隆(2004)東大講義『人間
の現在』, (朝):朝日新聞、2000.1.28./2000.10.1., (不):山田風太郎(1991)『不知火
軍記』, (チャ):芳賀徹(2000)『ハイカルチャー』, (裏):森本哲郎(1988)『日本語表
と裏』, (小):小憎 (開):加藤秀俊(2000)『日本語の開国』, (証):森村誠一(1977)『人
間の証明』, (砂):キャビン・ライアル(1990)『砂漠の標的』, (少):桑原三朗(198
7)『少年倶楽部の頃』, (楡):楡家 (氷):氷舞 (赤):小林久三(1996)『赤い法廷』

<Abstract>

Characteristics of Negative Expression through “N-ga-nai” in Japanese

This dissertation seeks to find characteristics of “N-ga-nai” as a negative expression in modern Japanese. In preceding researches, since studies of “N-ga-nai” cover partial observation of its usage, this dissertation aims to find diverse characteristics of “N-ga-nai” as a negative expression. Through systematic examination on “N-ga-nai”, three patterns of “N-ga-nai” and how it functions as a negative expression, especially when it comes with adverbs were shown.

“N-ga-nai” can be classified in two groups, that one group has independence and another has no independence. This classification is determined by attributes of nouns(N), and also affects relationship between a noun and an adverb, and its interpretation. In relationship with adverbs, the fact that “N-ga-nai” works without hindrance, while other expressions does not match with adverbs, was clarified. The expression “ikkouni”, for example, matches for “N-ga-nai”, while other possibility expressions does not.

“sappari, marude, marukkiri” are all on the same line, showing the distinction of “N-ga-nai”. “N-ga-nai” also has general language characteristics as a negative expression functioning as ‘negation of quantity’ and ‘negation of level.’ Lastly, in interpretation, the problem of attributive modification related to nouns, and differed interpretation by characteristics of “nai” were examined. In further study, analysis of relationships between adverbs and “N-ga-nai” and its uses would be researched for better understanding and theorizing of “N-ga-nai”.